

들어가며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노동정책 관련 기록물 중에서 주요 기록물을 선별하고, 해제하여 『정책기록 해설집VI (노동)』 발간작업을 추진했다. 국가기록원과 집필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노동 관련 기록을 우선 51만여 건으로 추려낸 뒤 1차 선별 과정에서 2천여 건, 3차로 선별 과정에서 700여 건으로 중요 기록을 압축시켜나갔다. 몇 차례의 계속된 검토 과정을 거쳐 중요기록 82건을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료적 가치가 큰 기록으로 보여지는 상당수의 귀중한 자료를 확인했다. 『정책기록 해설집VI (노동)』에 수록된 해제 대상 기록물 모두 원문 서비스가 필요한 문서이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노동정책 관련 학술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먼저 자료집을 더불어 편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 소장자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자료로서 가치가 큰 자료를 다시 선별해 자료집 발간을 동시에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고용, 임금, 노동인력 대책, 노동조합, 노동쟁의, 노동쟁의 대책 관련 기록들을 묶어 구성했다.

제1장 고용 관련 기록	日人 기술자 고용에 관한 건 / 1950
	자유노동자의 고용 및 노임 대책 / 1967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문제 / 1978
	여자근로자 정년과 관련한 업무지시 / 1984
	여자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 / 1985
제2장 임금 관련 기록	미지불 임금 및 임금인상에 관한 청원 이송 건 / 1954
	미불노임 청산 보고에 관한 건 / 1954
	83 임금조정 지도 협조 요청 / 1983
제3장 노동인력 대책 관련 기록	국가재건근로동원법(안) / 1961
	근로보호법(안) / 1961
	삼척지구 근로대원 해산에 관한 건 / 1961
	귀향 근로대원에 대한 직업보호 대책 / 1961
	대독일 노동력 협력에 관한 탄광근로자 출가사업 / 1964
	대독일 노동력에 관한 탄광근로자 제2차 출가사업 / 1965
	독일 내 취업 한국인 탄광근로자 분류에 관한 건 / 1965
	노동력 출가에 관한 주독대사의 보고 / 1966
	노동력 출가에 대한 주독대사 보고 / 1966

제4장 노동조합 관련 기록	대한노총 제4회 전국대의원대회 경과보고 / 1949
	대한노총 내 반동분자의 모략 진상 / 1949
	전국노동자 총단결 쟁기대회 개최의 건 / 1961
	노동조합 운영지침에 대한 검토 / 1980
제5장 노동쟁의 관련 기록	대한노총 광산연맹 대한석탄광노동조합연합회의 성명서에 관한 건 / 1954
	탄광 총파업 선언문 / 1954
	각 광업소 쟁의행위(파업) 종결 보고의 건 / 1954
	쟁의행위(파업) 경과 보고의 건 / 1954
	영월광업소 파업에 대한 통신보도에 관한 건 / 1954
	영월광업소 파업 관계 보고 전보 / 1954
	임금인상에 관한 건 / 1955
	철도노동쟁의 경위 보고에 관한 건 / 1955
	대한방직 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에 의한 건의 이송의 건 / 1956
	전국 항만 하역 노무자 임금인상 노동쟁의 처리 / 1960
	정부관리기업체 노동쟁의 경과보고 / 1963
	철도노동쟁의 종결을 위한 현업 수당 지급의 건(안) / 1964
	전국외기노조의 퇴직금 쟁의 / 1969
제6장 노동쟁의 대책 관련 기록	난국 극복을 위한 노사협조 강조 지시 / 1980
	최근의 노사분규 동향 보고 / 1987
	최근 노동쟁의의 실상과 특징 / 1987

이 기록들 중에는 지금까지 노동정책 관련 연구자가 학술연구에 활용하지 않은 자료가 다수 있다. 이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 특히 소장 기록물의 학술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자료는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재탄생된다. 따라서 자료집 발간은 노동정책 관련 기초사실을 밝히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 발굴과 정리, 그리고 자료집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